

사진으로 보는 냉전 전야 중국의 국제외교*

- 1938~1946년 연안영화단 활동을 중심으로

이승희**

<目 次>

1. 들어가며
2. 연안영화단의 발자취
3. 위험한 '우의(友誼)': 중·소 영화 교류
4. 이이제이(以夷制夷): 미군 시찰단 수용
5. 적군에게 아량을: 일본공농학교 홍보
6. 나가며

1. 들어가며

“산시의 농민들은 찢어지게 가난하다. 그들의 토지는 정말 척박하다. 장시 소비에트의 인구는 300만이었었는데, 여기는 많이 잡아도 60만이다. 장시와 푸젠의 사람들은 홍군에 입대할 때 짐 꾸러미 몇 개라도 들고 왔지만 산시 사람들은 짓가락도 들고 오지 않는다. 거둬 말하거니와 그들은 정말 가난하다.”¹⁾

저우언라이의 연안에 대한 소감이다. 험난했던 대장정을 뒤로 하고 도달한 연안은 낙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이곳은 오래지 않아 혁명의 성지로 거듭났다.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중화민족을 지켜내고자 전국 각지

* 이 논문은 2012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2S1A5B5A07037880).

** 한양대 중국학과, 중국영화 전공, 시간강사.

1) 모리스 마이스너 지음,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 1』, 이산, 2004, 71쪽에서 재인용.

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중국인뿐만이 아니었다. 해외 각국에서 세계혁명을 꿈꾸는 이들이 연안을 찾아왔다. 의사 노먼 베크(Norman Bethune)을 비롯해서, 저널리스트 에드가 스노우(Edgar Parks Snow), 군사 전문가 오토 브라운(Otto Braun), 선교사 아그네스 스메들리(Agnes Smedley) 등은 중국 공산당과 생사를 같이 했던 외국인들이다. 변방의 소도시였던 연안이 혁명의 성지가 되고, 괴멸 직전에 이른 중국 공산당이 최후의 승리를 쟁취한 사실은 분명 '근대의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오디세이'²⁾라고 칭할 만하다.

하지만 연안의 신화를 찬탄하기에 앞서 이 극적 반전의 배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의 선전(善戰)은 일련의 역사적 계기들로 뒷받침되었던 것이다.³⁾ 우선 1937년 일본이 중국이 침략하지 않았더라면, 그 와중에도 국민당이 관료 부패와 경제적 혼란으로 치닫지 않았더라면, 공산당이 애국주의적 호소로 국민의 절대다수인 농민의 여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이 천안문 성루에 오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전 세계가 의외의 사건으로 받아들인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이처럼 여러 역사적 계기들의 중층결정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누락시킬 수 없는 것이 바로 연안 시기 중국 공산당의 외교적 처세이다.



사진 1 연안영화단 단체사진(1938년)

이 글에서는 연안영화단이 제작한 영화 스틸컷 및 각종 사진 기록을 토대로 냉전 전야 중국의 국제외교를 되짚어보고자 한다. 사실 연안영화단은 중국영화사에서 찾기 힘든 이름이다. 그간 국민당 통치구(무한, 중경, 성도 등)와 조계지구(상해, 홍콩 등)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온 반면 연안 영화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왔다. 리다오신(李道新)은 1932년부터 1949년을 한 시기로 보며 '난세의 민족영상'⁴⁾이란 용어로 당시의 영화들을 집약

2) Edgar Snow, Red Star over China, New York: Random House, 1938, p.177.

3) 연안신화의 역사적 우연성에 대해서는 모리스 마이스너의 앞의 저서 72~73쪽을 참조함.

해낸 바 있다. 그런데 그는 대후방 및 조계지구의 작품을 집중적으로 다룬 반면 연안에서 제작된 영화를 배제시켰다. 또한 전 서독 출신의 슈테판 크라머는 연안의 영화가 '설비나 재정 부족으로 조악하게 만들어졌으며,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5) 수준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다.

연안의 문학·회화·음악 등이 우호적으로 거론되는 것과 달리 연안의 영화가 유독 폄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재고해볼 사항이다. 필자는 기존의 평가와는 거리를 두면서 연안영화단의 각종 영상기록물이 지닌 사료적 가치를 주시하고자 한다. 연안영화단은 1939년 9월에 수립된 이래 약 8년 간 영화제작, 뉴스편성, 사진촬영, 전람회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연안영화단이 국제외교의 첨병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연안영화단은 주로 영화기술 합작을 통해 외교 방면에 기여하였다. 최초의 국제합작은 네델란드의 다큐멘터리 대가, 요리스 이벤스(Joris Ivens, 伊文思)6)와 이루어졌다. 이벤스는 소련, 폴란드, 브라질, 쿠바, 베트남 등지를 누비며 역사적 현장을 필름에 담았는데,7) 중국에서는 항일전쟁 현장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4억의 인민(四萬萬人民)」을 제작한 바 있다. 촬영기사 우인셴(吳印鹹)8)은 이 해외 저명 감독과의 만남을 통해 연안영화단의 첫발을 내딛었다. 1938년, 이벤스가 중국 영화인들을 위해 애장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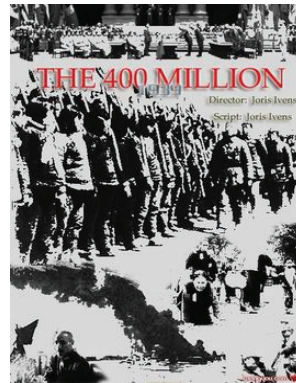


사진 2 「4억의 인민」 포스터

4) '亂世의民族影像', 李道新, 『中國電影文化史』, 北京大學出版社, 2005, 115-215.
 5) 슈테판 크라머 지음, 황진자 옮김, 『중국영화사』, 이산, 2000, 73쪽.
 6) 네델란드 네이메헌 출생. 1928년 「철교(鐵橋)」로 영화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세계 각지를 다니며 건설적·생산적인 제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했다. 미국의 R. J. 플라허티와 함께 초기 다큐멘터리 영화작가의 쌍벽을 이룬다.
 7) 네델란드에서는 「조이테르호(湖)」(1930~1933), 러시아에서는 「영웅의 노래」(1932), 중국에서는 「4억의 국민」(1939), 에스파냐에서는 「스페인의 대지」(1937), 캐나다에서는 「권력과 토지」(1941), 프랑스에서는 「센강의 노래」(1958), 베트남에서는 「하늘과 대지」(1966) 등을 제작했다. 기사참조 「다큐멘터리 거장 요리스 이벤스 회고전」, 2004.06.10. © 한겨레(<http://www.hani.co.kr>)
 8) 1900~1994년. 위엔무즈(袁牧之)와 함께 연안영화단의 주요 창립 멤버로 손꼽힌다.

EM(埃姆) 35mm 카메라와 필름 2000인치(inch)를 증정했는데, 이는 옌안영화단 소유의 첫 자산이 되었다. 이후 옌안영화단의 활동무대는 넓어졌다. 영화단원들은 옌안과 모스크바를 오가며 영화제작에 박차를 가했으며, 옌안에 거주하는 미국인들과 함께 기술협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옌안영화단의 외교활동이 기술합작 수준으로 그친 것은 아니었다. 영화단원들은 세계 각국에서 온 외국인들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으며⁹⁾, 더 나아가 그들의 친 공산당적 활동을 촬영하여 널리 선전했다. 가장 이색적인 것은 일본군 포로들과의 교류이다. 천황의 명을 받잡고 전장으로 달려온 그들은 총검을 내려놓고 훗날 일본 공산당의 수령이 된 노사카 산조의 지도하에 옌안의 혁명 사업에 일조했는데, 옌안영화단원들은 허물없이 그들과 어울렸으며, 카메라에 그들의 모습을 담아 중국 공산당의 대국적 면모를 과시했다.

요컨대 1938~1946년, 옌안에서는 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국제질서의 의외적 순간들이 발견된다. 당시 소련은 궁지에 몰린 중국 공산당을 향해 불신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으며 공공연히 국민당과의 연대를 주장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기습으로 태평양함대가 무력화되자 그간 간과해온 동아시아 지역권에 관심을 기울이며 일본 견제를 목적으로 중국과 연합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 연합의 대상이 국민당과 공산당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일본과 전쟁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일본 국적의 공산당원 및 민간인과 연합전선을 구축했다. 중국 공산당 내 최초의 영화관련 부서로 설립된 옌안영화단은 당시의 국제상황을 민첩하게 스크린에 담아내었는데,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이 소련, 미국,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얼마나 탄력적으로 외교노선을 취해왔는지가 드러난다.

이 글의 목적은 '미국/소련'이라는 냉전의 이항대립항 가운데 중국이 어떻게 '제

9) 옌안영화단 소속의 우인셴은 한국에서도 널리 알려진 혁명의 성자, 노먼 베쑨의 전속 촬영 기사였다. 닥터 노먼 베쑨의 의료봉사 활동은 옌안 뉴스영화의 메인 기사로 자주 다루어졌다. 1962년, 우인셴은 중앙 뉴스다큐멘터리영화제작소의 지원 하에 기존 영상을 편집하여 「노먼 베쑨를 기념하며(紀念白求恩湖)」라는 영화를 제작했다. 필자 논문, 「중화민족의 재구성-1930년대 옌안의 성자 노먼 베쑨에 관한 서사 연구」, 『대중서사연구』 제28호, 2012년, 99~121쪽 참조 가능.

3항'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구축해왔는지 추적하는 것이다. 필자는 정치외교가 아닌 문화외교의 영역에서 중·미·소·일 4개국 간의 사실관계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냉전에 대한 기존의 획일적 이해에 균열을 가하는 것과 동시에 '이념' 위주의 냉전 체제가 국가의 '실리'와 국제적 '정서'라는 변수를 통해 재구성되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안영화단의 발자취



사진3 연안영화단 소속의 우인센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마오쩌둥을 촬영하는 장면

연안영화단(延安電影團)¹⁰⁾은 중국공산당이 설립한 최초의 영화기구이다. 1938년 9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팔로군 총정치부 소속으로 연안에 세워졌으며, 정식명칭은 '팔로군 총정치부 연안영화단'이다. 탄쟁(譚政)이 단장을 역임했고, 정치지도원 리쑤(李肅), 예술감독 위엔무즈(袁牧之), 촬영담당 우인센(吳

10)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 임박해서 중국 정부는 역사정립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연안영화단의 활약상이 조명되면서 많은 사료들이 발굴되었다. 영화뿐 아니라 연안영화단이 제작한 뉴스, 슬라이드, 사진 등 각종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현재 중국 내에서 연안영화단은 혁명 사료의 보고로 중시되고 있으며 '인민영화' 사업에 끼친 공로를 재평가 받고 있다.

印鹹)을 중심으로, 쉬샤오빙(徐肖冰), 웨이치(魏起), 예창린(葉倉林), 마스요(馬似友), 우번리(吳本立), 조우충추(周從初), 치엔샤오짱(錢筱璋), 청모(程默) 등이 참여했다. 옌안영화단은 약 8년 간 옌안에 머물면서, 「옌안과 팔로군(延安與八路軍)」, 「섬감령 변구 2회 참의회(陝甘寧邊區二屆參議會)」, 「생산과 전투를 결합하라(生產與戰鬥結合起來)」(「남니만(南泥灣)」으로 개칭), 「의사 노먼 베순(白求恩大夫)」, 「천하무적, 붉은 군대(紅軍是一支不可戰勝的力量)」¹¹⁾, 「시월혁명절(十月革命節)」, 「옌안 각계 항전 기념 5주년(延安各界紀念抗戰五周年)」 등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였다. 내용상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각 방면을 두루 섭렵했는데, 마오쩌둥과 팔로군의 활약상을 비롯해서 항일전쟁의 추이, 옌안 및 섬감령 변구의 노동과 건설 현장, 소련의 혁명 활동, 제3세계 국가들의 항방 등을 스크린에 담았다.



사진 4 「남니만」 스틸컷-1



사진 5 「남니만」 스틸컷-2

대표작은 「남니만」¹²⁾으로서, 위엔무즈가 직접 소련에 가서 작업을 해올 정도로 공들인 작품이다. 팔로군과 남니만 지역 농민의 생산 현장을 다루었다. 1941년 봄, 국민당이 섬감령 변구 및 인근 항일 근거지에 대해 경제 봉쇄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중공중앙은 팔로군 359여단을 남니만에 주둔시킨 후,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11) 옌안영화단이 소련 영화 「만약 내일 전쟁을 한다면(假如明天戰爭)」, 「적의 소굴을 분쇄하라(粉碎敵巢)」 등을 자료로 도표와 만화를 삽입하여 새롭게 편집한 영화.

12) 본래 「남니만」은 섬북 지역의 민가이다. 공산당의 주도하에 전통민가는 혁명가곡으로 재탄생했다. 1942년, 허징(賀敬) 작사, 마커(馬可) 작곡의 「남니만」은 섬감령 변구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곡의 가사는 사람들을 격동시킬 만큼 영향력이 있었다. 현재까지도 많은 이들이 이 곡의 선율을 기억하고 있을 정도이다. (手風琴知音網, 2013-02-22)

지어 자급자족 능력을 배양하도록 했다. 3년이리는 짧은 시간 동안 왕편(王震)이 이끄는 359여단은 가시나무 투성이에 황량하고 인적 없는 남니만을 “풍성한 작물에 소와 양이 뛰노는 강남의 옥토”¹³⁾로 바꾸어 놓았다. 1943년 가을, 관할기구에

한 톨의 쌀, 한 치의 천, 한 푼의 돈도 요구하지 않았던 359여단은 오히려 섬감령 변구 정부에 식량을 제공했다. 이로써 국민당의 경제봉쇄 정책은 철저히 와해되었다.

연안영화단은 남니만의 뜻을 기리기 위해 1942년 영화제작에 착수했다. 마오쩌둥은 우 인셴의 요청으로 “자기 손을 움직여 일하니 입을 것과 먹을 것이 풍족해지다(自己動手, 豐衣足食)”라는 제사를 내렸다. 연안영화단 소속 방영대원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연안 관객에게 가장 많은 갈채를 받은 작품이라고 한다.¹⁴⁾

自己動手
豐衣足食



사진 6 마오쩌둥의 제사



사진 7 연안영화단 방영대원들은 나귀에 영사기를 싣고 연안과 그 주변 일대를 돌아다니며 영화를 상영했다. 방영대는 매우 왕성하게 활동했다. 팔로군을 비롯해서 섬감령 변구의 주민들 가운데 연안영화단의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13) 혁명가곡 「남니만」의 가사 중 일부.

14) 吳樂清·張岱, 『中國電影的豐碑—延安電影團的故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年, 131.

주목할 만한 것은 연안영화단에 소속된 방영대원들의 활동이다. 팔로군 총정치는 연안영화단 창립 다음해인 1939년 9월 28일 방영대를 결성했다. 우선 위평(余豐), 우더리(吳德禮), 시젠(席珍), 탕저화(唐澤華) 4인을 발탁하여 3개월 간 기술훈련 과정을 밟도록 했다. 처음에는 기관, 학교로 파견해서 영화를 상영하도록 했다.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자, 선전부는 방영대의 규모와 상영 범위를 확대시켜 나갔다. 대중선전에 힘을 기울여온 중국 공산당이 영화가 지닌 매체 효과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섬감령 변구 곳곳으로 산간벽지까지 방영대가 두루 파견되었다. 동네 어귀에 설치된 이동극장에서 농민, 병사,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신분의 관객들은 생애 처음으로 영화 매체를 접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영화만이 상영된 것은 아니었다. 방영대원들은 영화 상영 전후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대략의 순서는 다음과 같았다. 우선 낮에는 사진 전람회를 열어 마을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 해가 질 무렵이면 동네 공터에 은막을 설치하고 영화 상영을 준비했다. 관객들이 입장하면 방영대원이 구두선전을 시작했다. 텔레비전과 라디오가 없는 곳에서 까막눈으로 살아가던 이들은 중국 공산당 활동을 비롯해서 항일전쟁 현황, 소련의 혁명사업,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의 정보를 들을 수 있었다. 관객의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맞춤형 뉴스를 전달했기 때문에 그 반응은 열렬했다. 구두선전 외에 연안영화단이 제작한 슬라이드 뉴스를 보여주었다. 투명 필름 위에 채색물감으로 그린 단순한 영상이었다. 시사만화나 구호가 전부였다. 하지만 고된 농사일에 지친 이들은 방영대원의 재치 있는 입담 덕분에 재미를 느낄 수 있었다. 드디어 영화가 시작되면 은막 위로 마오쩌둥, 주더, 스탈린이 나타나고 일본군과의 전투장면도 대면할 수 있었다. 방영대원은 소련영화를 상영할 때면 중국어로 번역을 해주었으며, 줄거리가 복잡한 장면에서는 해설을 하고, 정치상식이 필요한 때는 교사 역할도 했다. 영화가 끝나도 관객들은 자리를 지켰다. 세상 돌아가는 정황에 대해 방영대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특정 시사에 관해 좌담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동극장은 섬감령 사람들의 놀이터이자 학교였으며 세상을 향한 창구였다.¹⁵⁾

15)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223~225쪽 참조. 방영대 조직은 연안 시기 이후로도 지속적으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언하자 연안영화단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바로 그날, 서둘러 슬라이드 뉴스를 제작하고 각지로 방영대원 전원을 파견했다. 그날 밤 관객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환호를 지르며 조국의 승리를 자축했다. 1946년, 연안영화단은 연안에서의 업무를 정리하고 팔로군과 함께 동북장정에 올랐다. 창춘, 하얼빈을 지나 헤이룽장 성 허강 시(鶴崗市)에 도착했다. 해방구의 영화기구들을 통합하여 동북영화스튜디오를 설립했다. 연안영화단의 마지막 종착지였다.

3. 위험한 '우의(友誼)': 중·소 영화 교류

코민테른의 지시¹⁶⁾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백색공포'(1927~1930년)로 이어진 후 중국 공산당과 소련의 관계는 결끄러워진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국 관계가 결렬될 정도는 아니었다. 소련은 연안의 영화 사업을 꾸준히 지원했다. 당시 해방구 농민들이 즐겨보던 외화는 대부분 연안영화단이 들여온 소련영화였다. 연안영화단에게 있어 소련은 영화제작의 선진국이자 학습의 대상이었다.

1938년 8월 말, 왕자상(王稼祥)이 귀국하던 길에 소련제 K101형 35mm 휴대용 유성 영사기와 3대의 발전기를 가져왔다. 소련영화 10여 편의 원판도 들여왔는데, 목록은 다음과 같다.¹⁷⁾ 「10월의 레닌(列寧在十月)」, 「우리는 크론슈타트¹⁸⁾에서 왔다(我們來自喀琅施塔特)」, 「차빠예프(夏伯陽)¹⁹⁾」, 「13인의 용사(十三

로 운영되었다. 1949년 건국 이후 방영대 활동 및 이동극장 체제에 대해서는 필자의 박사논문, 「大衆의建構—關於『大衆電影』(1950-1966年)中“身體”形象的研究, 北京大學, 2010年, 12~43쪽 참조 가능.

16) 1927년 코민테른의 지시가 내려졌다. 불처럼 일어나는 대중운동을 잠재우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민당과의 정치적 동맹을 유지하라는 것이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진퇴양난의 길에서 고민하던 사이 '백색공포'(1927~1930년)가 전개되었다. 국민당 주도의 무자비한 살육으로 대중조직은 와해되었고 공산당은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소련의 국가적 이익과 중국혁명의 실익이 충돌한 사건 중 하나였다. 모리스 마이스너, 앞의 저서, 55~60쪽 참조.

17)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377쪽.

18) Кронштадт, 핀란드만의 군항

勇士), 「극동변경(遠東邊疆)」, 「무지개(虹)」, 「스베르들로프(斯維爾德洛夫)」.²⁰ 혁명 열사를 다룬 전기영화가 많았으며, 해방전쟁, 사회주의 국가 간의 연대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소련제 설비는 그 다음 달에 세워진 연안영화단의 토대 기반이 되었고, 소련영화 작품은 중공 영화인들의 교과서 역할을 했다.



사진 8 소련영화
「1918년의 레닌(列寧在1918)」, 스틸컷



사진 9
소련영화 「차빠예프(夏伯陽)」, 스틸컷

* 위 두 편의 소련영화가 연안 일대의 인기 상영작이었다고 전해진다.²¹⁾

1940년 3월, 두 해를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연안영화단은 아직 영상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당중앙은 위엔무즈에게 최초의 제작 영화 「연안과 팔로군(延安與八路軍)」²²⁾ 필름을 가지고 소련에 건너가 후기 제작 과정을 마치도록 지시했다. 영화음악 작곡가 센싱하이(洗星海)도 동반하도록 했다. 저우언

19) V. I. Chapaev (1887-1919)

20) 야코프 스베르들로프, Yakov Sverdlov: 혁명가, 소련 건국 초기의 공산당 고위간부

21) 연안영화단원의 구술 자료에 근거함. 吳築淸·張岱, 앞의 저서, 131쪽.

22) 「연안과 팔로군」은 연안 및 항일 근거지를 배경으로 팔로군의 전투를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이다. 민간인과 어린이의 항전 장면도 포함해서 해당 지역 생활상을 살필 수 있다. “천하의 인심이 연안으로 향하다(天下人心歸延安)”를 주제로 삼고 있는데, 당시 정치 선전의 주요안점을 확인하게 해준다. 마오쩌둥을 비롯한 중앙 지도자의 업무 현황, 주더 팔로군 최고지휘관의 모습, 섬감령 변구의 정치, 생산 활동, 경제발전, 항일군정대학·섬북대학·루선 예술학원 학생들의 학습상황, 연안의 자연풍광 등을 기록하고 있어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라이²³⁾는 영화사업의 잠재성을 가장 먼저 인지한 지도자였다. 1940년 4월, 저우언라이는 출장 직전의 위엔무즈와 센싱하이를 불러 소련 영화계를 둘러보고 그곳의 기술과 경험을 배워오라는 특명을 내렸다. 5월 4일, 위엔무즈와 센싱하이가 옌안을 떠났다. 영화순례의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13일, 시안에 도착하여 출국 수속을 밟았지만 교통편을 구하기까지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10월 22일, 차량을 구해 시안에서 란조우로 이동, 다시 신장 우룸치(Urumchi)로 건너가 소련 항비행기에 올랐다. 소련의 수도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11월이었다.²⁴⁾ 소련 체류 기간, 두 사람은 「옌안과 팔로군」 제작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던 중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 1941년 6월 22일, 독소전쟁의 포탄에 영화 「옌안과 팔로군」 원판이 소실되고 만다.²⁵⁾



사진 10
 작품명: 延安與八路軍
 감독·편집·제작: 袁牧之
 촬영: 吳印咸
 장르: 전쟁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시간: 56분
 흑백영화

23) 옌안영화단은 중공 지도부의 관심과 독려를 받았다. 1940년 3월 26일, 저우언라이가 어깨 부상 치료를 위해 소련에 갔을 때 코민테른으로부터 16mm영사기와 영화필름을 증정 받았다. 그날 저녁 환영 만찬에서 저우언라이는 손수 소련영화를 상영했다. 소련에서 배워온 영사기 작동 방법을 방영대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吳承林, 「周恩來與中國電影事業」中國共產黨新聞, 史海回眸, <http://dangshi.people.com.cn/GB/index.html>

24)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380쪽.

25) 위엔무즈는 소련으로 떠날 때 대부분의 필름을 가지고 갔다. 그래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 16mm 원판 필름 일부를 옌안에 남겨두었다. 순간의 판단 덕택에 우인센이 전선에서 찍은 팔로군 전투 장면이 보존될 수 있었다. 그 가운데는 노먼 베쑨의 의료 활동에 관한 기록도 포함된다. 옌안영화단은 이 필름을 수공작업으로 인화하여 동북장정 시 지참했으며 신중국 수립 이후에 베이징으로 가져왔다. 馬紅, 「延安的第壹部影片『延安與八路軍』」, 中國共產黨新聞, 黨史頻道, 2013年 2月 28日, <http://dangshi.people.com.cn/n/2013/0228/c85037-20630837.htm> 참조.

사회주의 대국으로서 독일 과시즘과 대항 중인 소련은 중국이 응원해야 할 형제국이였다. 1941년 9월, 연안영화단은 소련 영화자료를 편집하여 다큐멘터리 「천하무적, 소련의 붉은 군대(蘇聯紅軍是不可戰勝的)」를 제작했다. 연안 전역에서 상영되었는데, 수많은 농민관객들의 갈채를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²⁶⁾

그러나 영화를 통한 중·소 양국의 우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다. 1942년, 연안에 정풍운동²⁷⁾의 소용돌이가 몰아쳤다. 당내 비판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그 일환으로 5월 2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마오쩌둥의 ‘연안 문예좌담회 상의 연설’(이하 ‘연설’로 약칭)²⁸⁾이 있었다. 중·소 관계의 변화를 예고하는 일종의 징후였다.

연안문예좌담회 상의 연설 및 정풍운동을 문예계 이슈로 한정시킬 수는 없다. 당시 마오쩌둥은 공산당 내 격렬한 권력투쟁 속에서 왕밍(王明)²⁹⁾을 비롯해서 소련과 코민테른에 가까운 인물들을 중앙지도부에서 배제시켰다.³⁰⁾ 때마침 소련이 코민테른을 해산했다. 중국 공산당은 더 이상 코민테른의 지부가 아니었다. 마오

26)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380~381쪽.

27) 시초는 왕스웨이(王實味) 비판이었다. 4월, 「해방일보」에 「들백합화(野百合花)」의 작가, 왕스웨이를 비판하는 글이 실렸다. 왕스웨이가 예술을 정치보다 우선시하며 정치부의 지도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6월 17일자, 「해방일보」에 장투신이 「왕스웨이의 트로츠키파 이론과 그 반당활동을 철저히 분쇄하자」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일명 ‘트로츠키주의’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해방일보」 측은 엥겔스가 하크네스에게 보낸 편지와 레닌의 문학론을 연속 게재했다. ‘연설’ 정신은 맑스·레닌주의를 중국의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한 마오쩌둥 사상의 핵심으로 추앙되었다. 문예계 종사자들은 자아비판을 통해 서둘러 입장 표명을 하고 마오 사상 학습에 돌입했다. 黃修己, 『중국현대문학발전사』, 범우사, 1999년, 550~551쪽 참조.

28) 주지하다시피 ‘연안문예좌담회 상의 연설(在延安文藝座談會上的講話)’은 두 가지 사항으로 요약된다. 첫째는 누구를 위해 봉사할 것인가? 둘째는 어떻게 봉사할 것인가? 이에 대해 마오쩌둥은 ‘공농병 방향’을 제시하여 봉사대상을 노동자, 농민, 병사로 확정했다. 아울러 작가 및 예술가에게 공농병 계층과 결합할 것, 정치적 기준을 예술적 기준보다 상위에 놓을 것, 민간 양식을 받아들여 중국기풍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했다. ‘연설’이 확정한 방침은 그간의 논란들, 예컨대 마오쩌둥 및 공산당 내부를 향한 비판, 몽매하고 나약한 국민성 풍자, 노농간부와 지식인 간의 불협화음을 일소했다. 溫儒敏, 『中國現代文學課程學習指導』, 北京大學出版社, 2004, 321~322쪽 참조.

29) 분명은 천사오위, 陳紹禹.

30) 모리카즈코, 지음, 김하림 옮김, 『중국과 소련-그 30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는 재생활 것인가』, 사민서각, 1990, 33쪽.

쩌둥의 지시로 모든 사령부가 움직이게 되었다. 마오쩌둥 체제가 발동한 것이다.³¹⁾ 이즈음부터 중국과 소련은 각각 강렬한 내셔널리즘을 분출하기 시작했다. ‘전략적 동반자’, 즉 자국에 이익에 부합할 때에만 함께 하는 관계로서 양국 간의 우의는 위태로운 길로 들어섰다.



사진 11 연안문예좌담회 상의 연설 당시의 단체사진 (우인센 촬영, 1942)

공산당 기구인 연안영화단 또한 체제 개편에 들어갔다. 진수 변구(晉綏邊區)와 섬감령 변구(陝甘甯邊區)³²⁾의 군사지휘권을 통합하기 위해 중공중앙 군위위원회는 진수, 삼감령 지역 5성의 연방사령부를 수립했다. 기존 정치기관의 간부들 대부분이 연방사령부 내 정치부로 편입되었다. 영화단은 연방사령부, 정치부 내 선전부 소속이 되었다. 이후 ‘연방정부영화단(聯政電影團)’으로 개칭되면서 선전부장 샤오상룽(肖向榮)이 직접 지도했다.

초기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운영되던 연안영화단은 이때부터 중국 공산당의 메가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체제 개편 후 필요한 것은 구성원들의 단합이었다. 연안 각계에서는 항전 5주년을 맞이하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도회를 열었다. 한편 9·1 운동회를 열어서 병사들과 민간인들의 정서적 화합을 도모했다. 영화단은 그 어느 곳이든 달려가 자료 사진을 찍었다. 주요 정치대회마다 마오

31) 마오쩌둥이 중국 공산당 주석이 된 것은 다음해인 1943년이다. 항일전쟁의 승리를 목전에 둔 1945년 4월, 중국 공산당은 17년 만에 당 대회를 개최하여 마오쩌둥 체제를 공식 선포했다.

32) 산시(陝西)·간쑤(甘肅)·닝샤(寧夏)의 변경 지역.



사진 12 연안영화단원 청모(程默)가 뉴스 영화 제작을 위해 미오쩌둥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 12 연안영화단원 청모(程默)가 뉴스 영화 제작을 위해 미오쩌둥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 12 연안영화단원 청모(程默)가 뉴스 영화 제작을 위해 미오쩌둥을 촬영하는 모습

쩌둥이 등장해서 연결했으며, 영화단은 그 장면을 스크린에 담아 뉴스 영화의 첫머리를 장식했다.

마오 천하에서 중·소 영화 교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1942년 여름, 연안영화단 소속의 방영대는 여전히 소련영화 「13인의 용사(十三勇士)」, 「조국의 아들딸(祖國兒女)」, 「해군폭동(海軍暴動)」 등을 상영했다. '소련 시월혁명 25주년 대회', '소련홍군 창립 25주년 경축대회' 등은 연안영화단 뉴스의 주요내용이었다. 게다가 연안영화단 주축로 '시월혁명절 기념 이동영화 전람회(紀念十月革命節流動影片展覽, 1943)', '소련보국전쟁사진 전람회(蘇聯衛國戰爭照片展覽, 1945)', '소련 뉴스영화 상영주간(1946)'³³⁾ 등이 기획되기도 했다.³⁴⁾ 하지만 소련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맹목적 동경의 대상이 아니었다. 미국의 개입을 우려한 스탈린이 중국 공산당을 반신반의하며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과 교섭을 시도하자³⁵⁾ 연안영화단의 태도는 더욱 조심스러워졌다. 1944년, 미군 시찰단이 연안에 들어오고 연안영화단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황은 한층 더 복잡 미묘해졌다.

4. 이이제이(以夷制夷): 미군 시찰단 수용

1944년 여름,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승리를 거둬주고 있었다. 루즈벨트 정부는 일본과의 전쟁을 더 조속히 종료하기 위해 연안에 시찰단을 파견했다. 약호는

33) 「아우렐 대결전(奧勒爾大會戰)」, 「붉은 군대, 불가리아를 공격하다(紅軍攻入保加利亞)」, 「붉은 군대, 민스크를 탈환하다(紅軍克復明斯克)」, 「루마니아의 붉은 군대(紅軍在羅馬尼亞)」 등이 상영되었다.

34)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381~387쪽.

35) 모리카즈꼬, 앞의 저서, 37쪽 참조.

‘딕시 사단 (DIXIE)’ 이었다. 대일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선 중국 공산당 지도부의 항전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종전 후 동북아 정책을 기획하는 데 있어서도 중국 실사는 필수 절차였다. 1944년 7월 22일, 미 정부가 파견한 미군 시찰단이 중공중앙 소재지인 옌안에 도착했다. 이때부터 미 정부와 중국 공산당의 3년에 이르는 정식 외교가 시작되었다.³⁶⁾



사진 13 1944년 7월, 미군 시찰단이 예젠잉(葉劍英)의 수행 하에 중국 군대를 사열했다.

미국은 옌안에 시찰단을 파견하면서 군사뿐 아니라 항공, 통신, 의료 방면에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미국의 중국 지원, 그 실제 수혜자가 장제스와 국민당이 아니라 마오쩌둥과 공산당이었던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세계경찰’의 입지를 다져온 미국이 보기에 마오쩌둥의 잠재력이 범상치 않았던 것이다. 마오쩌둥은 ‘항일’을 모토로 대중의 폭넓은 신임을 얻어냄으로써 그 정치적 역량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던 차였다. 옌안의 중공중앙도 미국의 지원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외세의 개입을 극도로 경계해왔지만, 당면한 적인 일본군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다른 오랑캐’와 연합할 필요가 있었다.

미군 시찰단은 18명의 군사·항공·통신·의료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였다. 처

36) 당 중앙은 미군 시찰단을 접견하기 위해 특별 외무팀을 구성했다. 저우언라이가 주관했으며, 양상쿤(楊尙昆)이 팀장을 맡았다. 구성원은 황화(黃華), 커보니엔(柯柏年), 천자강(陳家康), 마하이더(馬海德), 링칭(凌青)이었다.

음에는 옌안 북문 밖에 위치한 연방사령부에 기거하다가 전용 토굴을 배정받았다. 옌안영화단의 거주지와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미군 시찰단은 다양한 설비를 들고 왔는데, 그 가운데는 영사기, 영화필름, 슬라이드, 카메라, 각종 현상·인화기도 있었다. 그들은 지프차 2대, 트럭 4대, 다량의 자전거 등 교통편도 준비해왔다. 미국인들은 별다른 통제 없이 옌안을 돌아다녔다. 옌안 거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도 있었다. 그들은 타고 온 비행기로 매주마다 옌안과 충칭(重慶)을 오갔으며, 다른 도시들도 탐방했다.



사진 14 미군 시찰단이 팔로군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옌안비행장을 정비했다.



사진 15 미군 시찰단이 군내 피복 공장을 시찰했다.

옌안 영화단원들은 미국 측이 전해준 영상설비와 수편의 영화작품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그들은 미국인과의 공적, 사적 교류를 통해 영화 제작의 ABC, 즉 촬영 및 편집 기술을 익혀나갔다. 당시 미군 시찰단이 증정한 작품 목록³⁷⁾은 다음과 같다.

- ① 연합국 뉴스 24집: 「연합기 함부르크 폭격(盟机轟炸漢堡)」, 「미군의 타라와섬 점령(美軍攻克塔拉瓦島)」, 「테헤란 회담(德黑蘭會議)」 등
- ② 컬러만화영화 「유랑하는 카나리아(流浪的金絲雀)」
- ③ 컬러만화영화 「대담한 개구리(大胆的蛙)」
- ④ 미국 개발 시기의 슬라이드 1세트
- ⑤ 기타 슬라이드 여러 편

37)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131쪽.

연안영화단과 미군 시찰단은 영화제작과 사진촬영 방면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미군 시찰단 소속의 콜린(Colin)은 연안영화단의 기술을 눈여겨보고 연안 일대 사진을 촬영해달라고 부탁해왔다. 연안영화단은 즉시 이 일을 상부에 보고했다. 1944년 8월 31일, 저우언라이가 직접 승인했다. 아울러 무엇을, 어떻게 촬영할 지에 대해 주도면밀한 지시를 내렸다. 다음은 저우언라이의 답신이다.

인셴(印贇)과 샤오빙(肖冰) 동지에게

샤오빙이 보내온 편지 잘 받았소. 콜린의 사진촬영 계획은 관찮을 듯하오. 다만 니에(聶) 사령관과 예(葉) 참모장을 동반하면 좋겠고, 쉬(續) 주임이 따라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소. 중앙 판공청에서 제일 좋은 것은 푸(富)와 춘(春) 두 동지가 실내에서 사무 보는 모습입니다. 대강당에서 샤오치(少奇) 동지가 연설하는 장면도 좋겠지요. 식당은 안 찍어도 될 듯한데, 찍는다면 누군가가 밥을 먹고 있을 때여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양가(秧歌)'를 몇 장 찍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오누이가 황무지를 개황하다(兄妹開荒)」를 찍으세요.

이밖에도 우리는 양가 소개집 한 권을 낼 생각이예요. 양가 사진을 몇 장 찍어서요. 계획이 정해지면 다시 알려주겠소.

전쟁 사진은 샤오빙 동지가 토요일 오전 열한 시에 직접 와서 가지고 가시오.

우웨이윈(吳蔚雲), 천천(陳晨)이 온다고 하니, 우(吳), 당신들이 그에게 편지 한 통을 쓰세요.

저우언라이 팔월 삼십일³⁸⁾

1944년 9월, 저우언라이의 지시에 따라 쉬샤오빙은 미군 시찰단에 제공할 용도로 당 중앙 지도자가 연안에서 활동하는 사진을 촬영했다. 진서북(晋西北) 근거지로 가서 전선을 중흥무진하는 뤼정차오(呂正操)와 천만위엔(陳漫遠) 및 일본군으로부터 획득한 각종 전리품 등을 필름에 담았다. 우인셴과 우번리(吳本立)는 미군 시찰단과 중공 지도자가 함께 하는 사진을 찍어 신문지상에 게재했다.

미국 역사학자 캐럴 카터(Carol Carter)의 저서 『연안의 사명』에서는 홍미로

38)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244쪽.

운 사례들이 발견된다.³⁹⁾ 두 일화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당시 많은 중공 지도자들이 미군 시찰단 거처를 찾았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주더 등이 정기적으로 영화를 보러 왔다. 그들이 올 때면 미군들은 음악영화를 주로 들고 복잡한 줄거리의 극영화는 삼갔다. 자막도 없는 데다가



사진 16 마오쩌둥과 함께 한 데이비드 바렛
(1945, 우인센 촬영)

화면이 바뀔 때마다 번역해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특히 예젠잉 장군이 미국영화 애호가였다. 그는 영화 상영 전에 통역을 불러 미군들과 토론을 벌이곤 했다. 미국 국내 정치에 대한 거론도 서슴지 않았다. 중공 지도자와 미군은 그렇게 한 자리에 모여 영화를 보았다.

미군 시찰단은 옌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했다. 필요하면 주방과 창고를 짓기도 했다. 새로 지은 건물에 기상설비와 기상대원을 배치하는가 하면, 영사기와 녹음기를 가져다 놓고 암실을 만들었다. 미국인은 거기서 옌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찍은 사진을 현상했다. 그런 사진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공산당 소속의 촬영 담당인 우인센도 '딕시사단'의 암실을 맘껏 들락거렸다. 주로 사적인 이유로 이 암실을 찾았으나, 때로는 미국인들을 위해 현상 작업을 해주기도 했다. 그래도 사례비를 받지는 않았다. 필름을 선물로 받거나 구하기 힘든 촬영기구들을 얻어갈 뿐이었다.

옌안영화단은 아예 미군 시찰단 주둔지 내에서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전기 사용이 어려웠던 옌안에서 발전기를 쓸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었기 때문이다. 영화단 기술자들은 미군 암실에 가서 영화필름을 현상했다. 우수한 설비환경 속에서 정식 확대기와 인화기,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인화지와 약품을 넉넉하게 쓸 수 있었다. '원시적 암실'에서 작업해온 영화단으로서는 범이 날개를 단 격이었다.⁴⁰⁾

미군 시찰단은 옌안영화단과 친해진 후 영화단의 힘든 사정을 알게 되었다. 영

39) 아래의 두 일화는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245쪽에서 재인용함.

40) 吳樂清·張岱, 앞의 저서, 246쪽.

화단이 직접 제작한 「남니만」과 여러 사진 전람회를 둘러보고, 영화단이 것처럼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기울인 노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갑박한 미군 시찰단은 16mm 휴대용 영사기와 발전기 각 1대씩, 그 외에도 제2차 세계대전 기간에 미국이 제작한 뉴스 다큐멘터리, 사진 원판, 확대인화지 등을 연안영화단에 기증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자재는 낙후된 환경 속에서 수년간 작업을 진행해온 연안영화단 입장에서는 봄 기쁨에 때맞춰 내리는 비와도 같았다. 모두들 이 소식을 듣고 기뻐 어쩔 줄 몰랐다. 9월 15일, 연안영화단은 미군 시찰단이 증정한 슬라이드를 상영했다. 연한국



사진 17 단원 마스크가 미군 시찰단 영상설비를 이용하여 사진을 제작하는 모습

뉴스 24집 중 「연합기 함부르크 폭격」, 「미군의 타라와섬 점령」, 「테헤란 회담」, 컬러 만화영화 2편 「유랑하는 카나리아」와 「대담한 개구리」, 미국 개발 시기의 슬라이드 1세트를 장장 세 시간 동안 상영했다. 미국과 연한국이 여러 전장에서 얻어낸 승리의 장면은 연안에서 항전을 고수하는 팔로군 지휘관과 장병, 일반인을 크게 고무했다.⁴¹⁾

1945년 7월, 일본 투항 직전, 국민당 후종난(胡宗南) 군단은 섬감령 변구의 남쪽 지역에 병력을 집결하여 야태산(爺台山) 일대를 공격했다. 공산당은 교섭을 시도했으나 완강히 거부당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중공중앙은 연안에 거류하고 있는 국민당 연락참모를 불러 미군 시찰단과 함께 요현(耀縣)에 현장조사를 나갔다. 8월 8일, 팔로군은 야태산을 점령하고 있는 국민당 후종난 군부에 반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9일, 해당지역을 수복했다. 영화단 촬영대 우번리는 서둘러 전선으로 가서 포로로 잡은 국민당 병사들, 파괴된 지역과 상해를 입은 일반인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다. 또한 연안 외무팀의 양상쿤, 황화, 마하이더 등이 미군 시찰단을 동반하고 인근 일대를 탐방하는 모습도 촬영했다.⁴²⁾

41)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6쪽.

42)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7쪽.



사진 18 삼감령 변구 관중 진지에서 미군 시찰단이 팔로군과 함께 국민당 격파를 관전했다. (우변리 촬영, 1945년)

1945년 11월, 영화단은 미군 시찰단보다 먼저 연안을 떠나 동북장정(東北征程)의 길에 올랐다. 그리고 미군 시찰단의 잔류 인원은 1947년 11월을 마지막으로 연안에서 철수했다. 길지 않았던 합작 기간, 미군 시찰단은 연안영화단 및 중국 공산당과 줄곧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자유주의 진영의 수장이 될 국가가 한 시기 열성적으로 중국을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냉전의 기폭적인 순간을 곧 다가왔다. 건국 이듬해인 1950년 10월 19일, 중국인민지원군이 압록강을 건넜다. ‘항미원조(抗美援朝)전쟁’의 시작이었다. 미 제국주의에 대항하고 형제국인 조선인 민공화국을 원조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해 미국영화에 대한 전면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그렇게 중국인과 미국인이 나란히 앉아 영화를 감상 하던 기억은 지워져야 했다.

5. 적군에게 아량을: 일본공농학교 홍보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과 제2차 국공합작을 체결했다.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조직한 것이다. 1차 국공합작이 국민당의 배신으로 끝이 났으며, 그 결과 공산당 및 대중조직 수십만 명이 살해당해야 했던 사실은

고려될 여유가 없었다. 그만큼 일본의 침략은 중화민족의 존립을 뒤흔드는 거대사건이었다. 이후 8년간 일본은 최대의 적, 타도의 대상이었다. 그런 와중에 중국 공산당의 심장부인 옌안에서는 이색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팔로군 병사들과 일본군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평화를 외쳤던 것이다.



사진 19 옌안 일본공농학교의 교사와 학생들

백단대전⁴³⁾ 후에 일본군 포로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들에 대한 전향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그들이 회심하여 중국 인민들과 함께 일본 파시스트에 항거한다면, 다시 말해 일본의 양민들조차 일본 당국을 부정한다면, 최고의 선전효과를 창출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단 하에 당 중앙 군사위원회는 ‘중일민병반침략통일전선(中日兵民反侵略統壹戰線)’ 방침을 세우고 옌안에 ‘일본공농학교’⁴⁴⁾를 설립했다. 옌안 보탑산(寶塔山) 기슭에 토굴 몇 동이 지어졌다. 중국 공산당이 일본 포로를 개조, 교육시키는 기지였다. 1942년 5월

43) 백단대전(百團大戰)은 중일전쟁 시기 중국의 팔로군과 신사군이 일본군에 맞서 화북 지역 진찰기 변구(晉察冀邊區)에서 치른 대규모 전투를 일컫는다. 1940년 8월 20일, 시작되어 장장 6개월 동안 치러졌다. 1백 개 여단이 참전했다고 해서 ‘백단대전’이라고 명명되었다. 산서, 하북에 주둔한 일본군의 통신시설을 불통시키고 다수의 도시와 마을(城鎮, 성진)을 점령하는 등 큰 승리를 거두어 팔로군의 위상을 높였다.

44) 마오쩌둥은 일본공농학교 건립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였다. ‘일본공농학교(日本工農學校)’라는 명칭은 마오가 직접 제기한 것이다. 일본공농학교는 중공 중앙 군위원회가 관할한 정규정치학교로서, 팔로군 총정치부가 직접 지도했으며, 담당자는 총정치부 주임 왕자상(王稼祥), 부주임 탄쟁(譚政), 부장 왕쉐원(王學文) 등이었다. 鐵血社區 <http://www.tiexue.net> 참조.

15일, 옌안 문화구 팔로군 대강당에서 개학식이 거행되었다. 주더 총사령관 및 중앙기관, 옌안의 각 학교, 단체의 2,000여 명이 참가했다. 마오쩌둥은 친히 축사를 내렸다. “중국인민과 일본인민은 함께 한다. 다만 하나의 적이 있을 뿐이다. 일본 군국주의자와 중국의 민족 변절자들이다.”⁴⁵⁾

일본공농학교의 초대 교장으로 위촉되어 중·일 연대에 앞장섰던 일본인이 있다. 바로 노사카 산조⁴⁶⁾이다. 1945년 4월 중국공산당 제7차 전국대표회의가 옌안에서 개최되자, 그는 「민주적 일본 건설(建設民主的日本)」이란 제목으로 일본 공산당은 군국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옌안에 있는 일본군



사진 20 옌안에서의 노사카 산조

포로들을 찾아다니며 반전노선을 구축했다. 그는 주장했다. “일본군대를 떠나 무기를 내려놓고 군복을 벗은 일본 노동자와 농민들은 다만 제국주의의 희생자일 뿐이다. 그들의 계급의식을 일깨우고 침략전쟁의 본질을 인식하도록 이끈다면 조만간 반전의 평화사도로 거듭날 것이다.” 일본공농학교의 설립은 사실 그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40년 10월, 노사카 산조가 마오쩌둥에게 편지 한 통을 써서 중공중앙이 옌안에 전문학교를 세워 일본군 포로를 거두어달라고 건의했던 것이다.

일본공농학교는 심감령 변구 정부, 마스레닌학원(馬列學院), 민족학원, 신화사(新華社), 해방일보사, 항일군정대학(抗日軍政大學)을 이웃하고 있었다. 총 16개의 토굴과 한 동의 크지 않은 평방이 다였다. 교장과 취사원을 포함해서 전체 인원은 20명이 채 안 되었다. 교장 노사카 산조와 부교장 자오안보(趙安博)⁴⁷⁾는

45) “中國人民与日本人民是一致的, 只有一个敵人, 就是日本軍國主義与中國的民族敗類!”

46) 野坂參三, 1892~1993년. 일본의 정치가. 게이오(慶應) 대학 졸업. 일본 국내에서 반전운동으로 여러 번 투옥되자 모스크바로 건너가 코민테른 일원으로 활동했다. 1940년 3월, 소련에서의 활동을 접고 옌안으로 거취를 옮겼다. ‘임철(林哲)’이라는 가명을 썼다. 아울러 일본 이름도 ‘오카노 스스무(岡野進, Okano Susumu)’로 개명했다. 1945년 귀국 후, 중·참의원(衆參議員)에 각 3선, 일본 공산당 중앙 위원회 의장을 역임했다.

각각 행정과 교무를 담당했다. 교사진은 왕쉐윈(王學文), 허스징(何思敬), 리추리(李初梨), 라오티런(廖體仁), 장요슈(江右書) 등이었다. 노사카 산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본에 유학을 다녀와서 정통 일본어를 구사하는 중국인들이었다. 학교는 1940년 개교하여 항전 승리 후 폐교했다. 초기 학생 수는 고작 11명이었으나 1945년 8월 전체 학생 수는 300여 명으로 증가했을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학교의 운영지침은 “평화, 우애, 정의, 근로, 실천”이었다. 학생들은 일본 국적의 전쟁포로, 반전주의자, 혁명인사들이었다. 학과목은 시사,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 중국문제 등 10개로 구성되었다. 1940년에서 1945년에 이르기까지 500여 명의 일본군 전쟁 포로들이 이곳에서 사상교육을 받았다.⁴⁸⁾ 그들 중 대다수는 항일전선으로 나가 팔로군, 신사군에 합류했다. 일부는 후방에서 일본에 대한 선전을 진행하면서 일본 군국주의자가 침략전쟁을 일으킨 ‘죄악’을 폭로하고 일본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켜나갈 것을 호소했다.



사진 21 일본공농학교 선전대



사진 22 일본공농학교 학생들이 토론회를 열어 일본 군국주의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연안영화단은 일본공농학교를 홍보하는 데 주력했다. 일본군 포로의 학습상황과 생활상에 대한 뉴스영화를 찍어 상영하거나 사진 전람회를 개최했다. 중국공산당과 팔로군이 일본군 전쟁 포로를 어떻게 ‘교화’시키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

47) 팔로군 120사단 359여단 정치부 적공과 과장. 1943년 4월 이후부터는 총정치부 적공과 부장 리추리(李初梨)가 부교장을 겸임했다.

48) 「中共改造日本戰俘的“延安經驗”，曾震驚美國人」, 澎湃新聞網(上海), 2014-12-10, <http://news.163.com>

히 일본 학생들이 중국에서 중국 공민과 동등한 권리를 향유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적지 않은 일본 학생들이 중공 간부의 위치까지 올랐는데, 모리 타케루(森健留, Mori Takeru), 쇼지 시즈오(小路靜男, Syouji Sizuo)가 각각 삼감령 변구 정부 참의원과 옌안 시 참의원으로 선출되었던 것이다.”⁴⁹⁾



사진 23 중공지도자들이 일본공농학교를 방문한 미군 시찰단과 대화를 나누었다.

옌안영화단의 선전활동으로 일본공농학교는 일약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미군 시찰단 역시 일본공농학교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1944년 7월, 미군 시찰단 18인은 옌안에 도착 후, 일본공농학교 참관을 요청했다. 그들은 중국 공산당이 어떻게 일본군 포로들을 포용할 수 있는지 신기해했다. 중국 공산당이 일본군을 개조시켜서 중·일 양국 군인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항일의

전장으로 나가는 모습, 특히 그들 간에 전우애가 싹트는 모습은 미군 눈에 기묘하게 비추어졌다.

일본공농학교 신입생 문예회가 열린 날, 미군 시찰단 4명이 참석했는데, 그들은 관중석 맨 앞자리에 앉아 일본 교사와 학생들의 공연을 관람했다. 프로그램 대부분은 일본의 풍토와 인심에 관한 내용이었다. 예컨대 무용극 「사도⁵⁰⁾춤(佐渡舞)」, 「야기참배(野崎朝拜)」, 촌극(寸劇)⁵¹⁾ 「수확의 가을(收割的秋天)」 등이 그러했다. 「수확의 가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의 한 농부가 일 년 사계절 밭을 갈고 피땀을 흘려 수확한 곡식을 쌓으니 마치 산과도 같았다. 하지만 자신이 노동한 결과물을 전부 침략전쟁을 일삼는 군대에 바쳐야 했다. 하늘만 쳐다보며 한숨을 내쉬어도 뾰족한 수가 없으니 고통스러운 나머지 살고 싶지 않을 지경이었다. 일

49)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37쪽.

50) 일본의 전통무용.

51) 活報劇: 시사 문제 따위를 드라마 형식으로 다루어 대중에게 쉽게 이해시키는 일종의 계몽·선전극으로 주로 거리나 광장에서 공연함.

본 파시스트에 의해 핍박받는 양민들의 삶이 관중들의 동정을 자아냈다.

이어지는 순서는 연극 「응정사건(應征事件)」이었다. 반전 분위기가 한층 더 고조되었다. 연극 도중 일본 응정현 경비대 노병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고 싶지 않아서 분연히 일어나 항거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 연기가 마치 실제인 듯 생동감 있었는데, 와코리(和向里)의 그 노병이 형형히 빛나는 총검을 들어 후쿠다(福田, Fukuda) 중대장을 겨누자, 무대 아래의 일본인과 미국인 관객들이 모두 주먹을 휘두르며 외치기 시작했다. “해치워, 해치워버려!” 그들은 극중 인물에 도취된 나머지 국적도 잊은 채 하나가 되었다.⁵²⁾



사진 24 일본공농학교 학생들의 연극 「최전선(前哨)」 공연 장면

1944년 11월 25일, 연안영화단은 일본공농학교에서 미군 시찰단이 제공한 자료로 사진전람회를 개최했다. 전시된 100여 장의 사진들은 미군이 태평양, 미얀마, 서유럽 등지에서 전투하는 장면을 담았는데, 일본 학생들의 탄성이 끊이질 않았다고 한다.⁵³⁾ 학생들은 미얀마 텅충(騰冲) 전쟁터에서 들것에 실려 나가는 일본군 부상병의 사진을 보았다. 그 몸이 마치 해골처럼 깡말라 있었다. 그날 일본군 학생들이 진정 무엇을 느꼈는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연안영화단의 뉴스는 다음과 같이 전했다. “그들은 팔로군이 선전하는 혁혁한 전과가 속임수가 아님을 다시

52) 「延安工農學校改造日本戰俘(圖)」, 環球時報, 2003年 8月 21日, <http://www.sina.com.cn>

53) 앞의 기사 참조.

금 확인할 수 있었다.”⁵⁴⁾

일본공농학교의 체육 및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선전은 중국 공산당의 인간적 면모를 알리기에 좋은 소재였다. 일본 학생들의 줄다리기, 유도, 스모, 다이아몬드 게임, 야구시합 등 온갖 장면이 동원되었다. 1945년 봄, 일본공농학교는 미군 시찰단을 초청해서 친선 야구경기를 열었다. 소식이 전해지자 연안의 병사들이 몰려들어 함성을 지르며 응원했다. 그 경기는 연안 보탑산 아래에서 진행되었는데, 좁처럼 승부를 가리기 어려웠다. 작은 야구공이 머리 위로 날라 다녔다. 선수들은 온 몸이 땀투성이가 되었다. 두 게임 모두 결국 미군 시찰단이 승리했다. 하지만 일본공농학교 학생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 그 태도는 겸손하고 온화할 뿐이었다. 그들은 「해방연맹가(解放聯盟歌)」를 소리 높여 부르며 미군의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해주었다고 한다.⁵⁵⁾



사진 25 일본공농학교 학생들과 일본 국내 인민들의 식단 비교표. 중국 공산당이 진정으로 포로들을 위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1945년 9월 초, 노사카 산조(野坂參三)⁵⁶⁾는 이 학교 200여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자신의 나라로 돌아갔다. 일본이 투항한 직후였다. 이로써 긴박한 전시상황 속에서 국적을 초월하여 연출되었던 ‘평화’의 이벤트도 그 막을 내렸다.

54) 앞의 기사 참고.

55) 앞의 기사 참고.

56) 귀국 당시 영웅 대접을 받았다. 일본 공산당의 핵심인물로 순조롭게 성장했다. 고문으로 재임하던 1992년 당내 권력투쟁 과정에서 소련 체류 시 동료에 대한 무고죄가 밝혀져 제명되었다.

7. 나가며

1990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었다. 이어서 11월 21일에는 유럽안보 협력회의에서 34개 회원국들이 파리현장에 서명하면서 '대결과 분열의 시대는 유럽에서 종말을 고하였다'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냉전이 진정 종식되었는가,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한편에서는 사회주의권이 몰락함으로써 냉전 체제 자체가 무너졌다고 판단한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국제질서가 평화 공존기에 들어선 것은 확실하지만, 냉전 구도는 그대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냉전의 종식 여부를 단언하기에 앞서 진행되어야 할 것은 냉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즉 냉전이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배태되어 나왔는가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냉전이 본격화되기 이전 중국 연안을 배경으로 전개된 국제외교의 의외적 순간들을 추적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의 막바지에 소련과 미국은 이념보다는 자국의 이익에 따라 중국을 견제하거나, 중국과 연합하였다. 중국 공산당 또한 민족의 존립을 최우선으로 삼아 미·소 양국에 대처했다. 즉 중국, 미국, 소련 모두 국가의 실리를 위주로 외교노선을 책정했던 것이다. '냉전'이라는 어휘가 1945년 이후 사회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으로 분리된 양극체제 하에서의 정치·외교·군사상의 갈등을 지칭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그 시초가 이념보다는 '실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분명 20세기의 아이러니이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국가적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적 연대에도 충실했다는 점이다. 중국 공산당은 항일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공산당원을 비롯해서 전향한 일본군 포로, 일본 국적의 민간인과 지속적인 교류를 꾀하였다. 한편 말라야의 화교 공산당원과의 접촉을 통해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연대 영역을 확장하기도 했다.⁵⁷⁾ 즉 식민의 역사를 딛고 국가의 경계를 확정해야 했던 아시아에서

57) 20세기 초, 중국인 공산당원의 말라야 지역 활동에 대해서는 판완밍(潘婉明)·천평후이(陳丁輝)의 「말라야에서의 한국전쟁-말라야 공산당 투쟁과 신촌 기억에 관한 재고찰」 참조 가능. (백원담·임우경 엮음,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기획, 『냉전』 아시아의 탄생:

중국 공산당은 ‘민족’, ‘국가’, ‘냉전’의 논리를 본토의 상황에 따라 절충시켜 온 것이다.

이 지점에서 회고할 것은, 스탈린의 고백이다.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에 의하면, 스탈린은 1948년 2월 모스크바를 방문한 유고 대표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우리들도 실수를 범했다. 우리는 중국에서의 반란이 가망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중국의 동지들이 장개석과 공존하기를 희망한 나머지, 장의 국민당 정권에 참가하여 공산군을 해체시켰다. 이를 솔직히 시인한다.”⁵⁸⁾ 지난 세기 냉전 체제를 이끌어온 것은 미국과 소련이지만, 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은 미·소 양국에 버금가거나 혹은 능가하는 것이었으며, 중국의 행보는 때때로 미·소 양국의 판단을 벗어나는 파행성으로 냉전체제에 균열을 가해왔다.

소련 해체 이후 미국은 한동안 독보적 위치를 점하였다. 하지만 2008년, 미국의 경제 위기 심화로 미국이 이끄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주춤하고 있다. 세계 은행, WTO, IMF 등 미국을 근간으로 하는 국제기구들이 유명무실해진 것이 그 반증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전 세계가 G2로 급성장한 중국을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돌연 러시아와의 관계를 급진전시키고 북한 핵문제에 깊이 관여하면서, 21세기 새로운 냉전 체제가 출범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휴화산 밑바닥을 가로지르듯 냉전의 기운이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경제성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오쩌둥은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격언을 남겼는데, 그가 지금도 살아있다면 “권력은 금전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을까? 강력한 에너지원으로서의 중국이 과연 어떠한 물꼬를 틀 것인가? 새로운 금권력으로 부상한 중국이 동북아 정세와 세계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주시되는 바이다.

신중국과 한국전쟁』, 문학과학사, 2013년, 363~396쪽.)

58) 모리카즈꼬, 앞의 저서, 38쪽.

〈사진출처〉

- 사진 1 李舒亞, 「新影：在這裏讀懂中國」, 『人民畫報』, 2014年 8月 第8期.
- 사진 2 四萬萬人民, 詞條圖片, <http://baike.baidu.com>.
- 사진 3 李舒亞, 「新影：在這裏讀懂中國」, 『人民畫報』, 2014年 8月 第8期.
- 사진 4 영화 「남니만(南泥灣)」 스틸컷, 연안영화단 제작, 1942년.
- 사진 5 영화 「남니만(南泥灣)」 스틸컷, 연안영화단 제작, 1942년.
- 사진 6 「自己動手 豐衣足食」, 中國記協網, 2007年 1月 14日, <http://news.xinhuanet.com>
- 사진 7 吳築清·張岱, 『中國電影的豐碑—延安電影團的故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年. 72쪽.
- 사진 8 소련영화 「1918년의 레닌(列宁在1918)」 스틸컷
- 사진 9 소련영화 「차빠예프(夏伯陽)」 스틸컷
- 사진 10 「연안과 팔로군(延安與八路軍)」 스틸컷, 연안영화단 제작, 1941년.
- 사진 11 「延安文藝座談會大合影,毛澤東和朱德等領導人在前排」, www.shwenyi.com.cn.
- 사진 12 「延安電影團爲毛澤東拍攝—時代的忠實記錄」, www.people.com.cn.
- 사진 13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3쪽.
- 사진 14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3쪽.
- 사진 15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3쪽.
- 사진 16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5쪽.
- 사진 17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6쪽.
- 사진 18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47쪽.
- 사진 19 Yenan Report 62, June 5th, 1945 NARA II, RG 208-Office of War Information, Entry 370-Bureau of Overseas Intelligence Central Files, Box 377.
- 사진 20 佚名, 「抗日戰爭時期的國際友人」, 華興時報, 2012年 7月 10日.
- 사진 21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37쪽.
- 사진 22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38쪽.
- 사진 23 「延安工農學校改造日本戰俘(圖)」, 環球時報, 2003年08月21日.
- 사진 24 吳築清·張岱, 앞의 저서, 237쪽.
- 사진 25 「延安日本工農學校裏的日本戰俘：被改造後浴血戰場」, http://tuku.news.china.com/history/html/2014-12-01/228031_2578611.htm

〈참고문헌〉

- 모리스 마이스너, 김수영 옮김, 『마오의 중국과 그 이후1』, 이산, 2004년.
- 모리카즈코 지음, 김하림 옮김, 『중국과 소련-그 30년의 역사 그리고 사회주의는 재생활 것인가』, 사민서각, 1990년.
- 黃修己, 『중국현대문학발전사』, 범우사, 1999년.
- 슈테판 크라머 지음, 황진자 옮김, 『중국영화사』, 이산, 2000년.
- 上海交通大學世界反法西斯戰爭研究中心研究助理 Evan Taylor在“合作與分歧：抗戰時期的同盟”國際研討會上的報告：Workers and Peasants and Psychological Warfare: U.S.-Communist Propaganda Collaboration in the Sino-Japanese War.
- 李道新, 『中國電影藝術史』, 北京大學出版社, 2007年.
- 李道新, 『中國電影文化史』, 北京大學出版社, 2005年.
- 陸弘石·舒曉鳴, 『中國電影史』, 文化藝術出版社, 北京, 1998年.
- 李浩非·楊浩, 『解讀延安—文學、知識分子和文化』, 北京, 當代中國出版社, 2010年.
- 吳筑清張岱編著, 『中國電影的丰碑—延安電影團的故事』,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08年.
- 方方, 『中國紀錄片發展史』, 北京, 中國戲劇出版社, 2003年.
- 賀紅英, 『文學語境中的蘇聯電影』, 北京, 中國電影出版社, 2008年.
- 溫儒敏, 『中國現代文學課程學習指導』, 北京大學出版社, 2004年.
- 정재각, 『美國의 對中國政策: 國·共內戰年間(1944-47)을 中心으로』, 석사논문, 한양대학교, 1984년.
- 김동길, 「1945년-1950년 중·미관계와 “중국 상실론” 비판」, 『東洋史學研究』, Vol.111, 2010년, 267-311쪽.
- 김원곤, 「엔안(延安) 시기 整風運動의 背景 및 性格에 대한 고찰」, 『中國學論叢』, Vol.33, 2011년, 245-265쪽.
- 최상철, 「엔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1)」, 『노동사회과학』, Vol.- No.5, 2012년, 304-326쪽.
- 최상철, 「엔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2)」, 『노동사회과학』, Vol.- No.6, 2013년, 31-65쪽.
- 최상철, 「엔안문예강화 당파적으로 읽기(3)」, 『노동사회과학』, Vol.- No.7, 2014년, 135-166쪽.

〈Abstract〉

International diplomacy of China in the eve of Cold War through the Pictures
- Focused on the Yanan film production during 1938~1946

Lee Seung-Hee

In this study, The relation of mutual influence on Chinese movies, American movies and Soviet movies which are setting in the Yanan area from 1938 to 1946 was considered. Yanan film production center, organized in 1938, produced documentary films regarding the action state of Mao Zedong and Red military forces by using the Soviet movies and American movies as textbook for its reference.

Broadcasting team belonging to the film production center used to release the self-manufactured movies and imported movies in the nearby area. The researcher of this study started from the objective research, which arranges movie lists that were released at that time. And then analyzed the context which diagnose the international relations of China and three major powers-USA, Soviet Union and Japan. Through the cultural cases before the Cold War, international relations are viewed to track the third party-China to build up the loca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USA/Soviet Union', the opposing relation during the Cold War. With this, it could be checked that the 'Ideology'-centered Cold War system was flexibly reformed through the factors of 'benefit' and international 'affect'.

Key word: Yanan film production, Chinese movie, Cold war, Ideology, Benefit, Affect

이 논문은 2015년 7월 19일에 접수되어 2015년 8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5년 8월 1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